자동차 10대중 1대꼴 '등화장치' 고장

지난해 차량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3만대 넘어
등화장치 고장으로 사고 유발… 처벌 규정 '無'

지난달 4일 오전 8시30분쯤 제주시 도남동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강모(34)씨는 앞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앞 차량의 제동등이 켜지지 않아 앞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 그대로 주행했다가 추돌한 것이다.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 차량의 제동등이 고장나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강씨는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강씨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내 잘못도 있지만, 제동등이 고장난 채로 도로에 나선 것도 문제"라면서 "가뜩이나 붐비는 출근시간에는 앞차의 제동등이 켜지지 않으면 거리를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제동등과 전조등 등 '자동차 등화장치'에 문제가 많은 차량들이 적지 않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은 26만9657대 가운데 11.6%에 달하는 3만1298대가 등화장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2016년 1만7399대(검사 자동차 23만49대), 2017년 2만852대(검사 자동차 24만8591대)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제주에서 등화장치 부적합 판정이 많은 이유는 자동차 장치 가운데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져 점검 우선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자주 고장나지도 않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문제를 발견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점이 운전자들의 관심을 떨어뜨린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한국 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택시나 버스 같은 사업용 차량은 일상점검이 이뤄져 문제가 없지만, 일반 차량은 등화장치가 고장난지 모른 채로 자동차 검사 때까지 수년간 방치될 수 있다"며 "운전자 혼자 확인하기 어려운 제동등 같은 경우는 지인에게 한번 봐달라고 부탁을 해 주기적으로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등화장치 고장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도 처벌 규정은 없다. 보험사에서의 과실 판단 기준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모씨가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4일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희만기자

전 남편 살인사건 '계획 범죄' 정황

사전 흉기 준비·휴대전화로 살인도구 검색

속보=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모(36·여)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씨는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만난 지난달 5월 25일 전에 휴대전화 등으로 '니코틴 치사량', '살인도구' 등의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 전에 흉기를 미리 구입했으며, 강씨를 살해한 뒤 펜션에서 나온 5월 27일에는 강씨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알리바이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박기남 동부서장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씨가 계획적 범죄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이 만료되는 오는 11일 전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아들 이벤트를 위해 수박을 자르던 중 전 남편과 문제가 생겨 흉기를 휘둘렀다"며 "시신은 완도로 향하는 여객선 위에서 버렸다"고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고 있다.

고씨가 시신을 유기한 장소도 윤곽이 나오고 있다. 고씨가 진술한 시신 유기 장소 2곳과 수사를 통해 밝혀낸 1곳 등 총 3곳으로 압축됐다.

3곳 가운데 1곳은 고씨가 진술한 완도행 여객선인데, 경찰의 요청으로 해경이 지난 2일부터 해상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5월 28일 오후 9시30분쯤 해당 여객선에서 고씨가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몇 분간 버리는 CCTV 영상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펜션에 남겨진 강씨의 혈흔에 대해 약독물 검사를 진행하고,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고씨의 심리상태도 분석하고 있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같은달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는 등 도주 행각을 이어왔지만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거주지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4일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판사는 고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은범기자

"생계보장도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하라"
민주노총 기자회견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4일 제주경영자총협회 사무실이 위치한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8년 이후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하루에 수백 건씩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기사를 쏟아 내고 있다"며 "경제의 핵심 주체인 재벌과 대기업은 제조업 고도화와 경제 민주화,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국제기준이라 할 수 있는 ILO(국제노동기구)와 UN(국제연합)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2018년 가족 생계비 기준 5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1인 가구 생계비 기준 75%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재벌은 중소상공인과 최저임금노동자를 이간질시키고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억제정책에 단호히 반대하고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경총 앞에서 2019 최저임금 투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석기자

수능 6월 모의고사 제주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4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험을 치르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지역 초등생 '고도비만' 심각

고도비만율 최근 3년 1.9%→ 2.1%→ 2.3%로 상승

제주지역 고도비만 초등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심각성을 느낀 교육당국이 고도비만 학생들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학생관리 추진 계획 수립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 비만 통계 관리 전수조사결과 도내 초등학교 고도비만 학생수는 2017년 745명(고도비만율 1.9%), 2018년 836명(2.1%), 2019년(4월말 기준) 925명(2.3%)으로 지속 늘고 있다. 올해의 경우 학년별 고도비만 학생수는 1학년 126명, 2학년 148명, 3학년 166명, 4학년 142명, 5학년 143명, 6학년 200명이다. 학교당 고도비만 학생수는 최대 34명이었고, 고도비만율이 최고 7.1% 또는 5% 이상인 학교가 8개교였다.

도교육청은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와 학생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높은 패스트푸트 섭취율과 낮은 수면율 등이 제주학생들의 비만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현재 도교육청은 올 상반기 중 초등학교 고도비만 학생 관리 추진 계획 수립을 목표로 비만예방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체 학생 대상의 비만예방교육으로는 고도비만 학생 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보건·체육·급식·정신건강과 연계한 다각적 협력을 통한 1:1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를 넘어 가정, 지역사회의 관심·지원도 필요한만큼 도청과 공동 대처를 위한 올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제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중학교 고도비만 학생비율은 3.5%, 고등학교는 5.5%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났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애완견 안구 손상시킨 50대 징역 4월·집유 1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애완견의 눈을 손상시킨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4)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7시쯤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자신의 애완견이 집 창문 앞에 대소변을 쌌다는 이유로 빨래 건조대 봉으로 눈을 수차례 가격해 안구를 터뜨리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선고를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맛과 향이 좋은 감귤(만감)
어떻게 생산 할 것인가
하하농법만이 해결책이다
당
H2O+CO2+햇빛(광)조화 =〉 당상승
◎ 꽃이 성냥개비 ◎ 꽃이 콩알 ◎ 2차낙과 후 일주일 간격 2회
◎ 과일색이 탈색될때 3회 =〉 해피한그린 + 글루칼 엽면시비
양낭(갑)
내피를 양낭막 또는 양낭이라 하는데
양낭을 부드럽고 씹히는 정도가 가볍게 하려면 =〉
봄순이 녹화되면 첫 세근(뿌리)발생시 자연(천연) 가리가 9% 들어있는 하이휴믹 토양관주
향
감귤(만감)을 먹고나서 여운의 향을 입안에 퍼지기 위해 착색시 =〉
해피한그린 + 글루칼 + 팡이엔 을 2번 엽면시비
해피한그린 이온이 3개인 희토 원소가 들어있는 복합생육조절제
글루칼 포도당 칼슘(글루콘산)으로 높은 흡수율을 자랑
팡이엔 고기능 식이유황(MSM)함유된 환경친화적인 고기능 생육 촉진제
하이휴믹 알카리성 천연가리(K-부식산)로 친수성이 뛰어난 포타슘 휴믹산
곰탱이감귤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州(주)리모델링
辛(신)一(일)祚(조)
누수탐지·방수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도어문 / 대문 교체
붙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친환경 전통건축
[한옥에서의 건강한 삶],
전통건축 선자연이 실현합니다.
시 공
– 전통건축(살림집, 사찰)
– 전원주택 시공 및 리모델링
– 전통 구들 시공
– 문화재청 등록 [문화재수리기술자] 직접 시공
– 전통건축 대목이 직접 시공참여 기술지도
– 나무, 흙, 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한 친환경 건축
– 제주 전통건축 양식 및 기후 반영한 설계 시공
– 품질 우선 시공, 합리적인 건축비

상담 : 010-5308-5796, 064-764-0488
전통한옥문화재사랑 선자연